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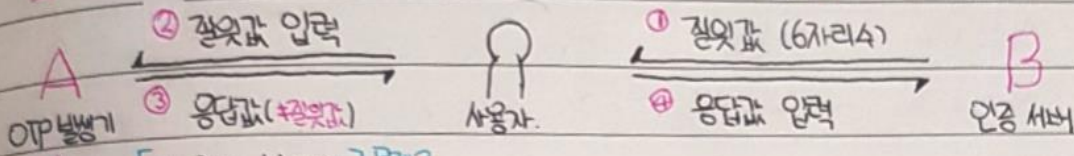
<OTP>

Q1 ID + 비밀번호 → [고정된 정보 노출 우려] 문제1

[그러나?] OTP 기술 → 인증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 생성 [해결1]

Q2 OTP - ① 비동기화, ② 동기화 방식.

① 비동기화 방식 → OTP 발생기 - 인증서버 간 동기화 값 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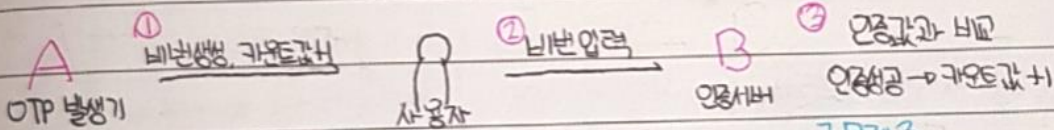
그러나, [사용이 불편함] 문제2

[왜?] 사용자가 PIN 직접 입력해야 됨 [문제2]

Q3 ② 동기화 방식 [해결2] → OTP 발생기 - 인증서버 간 동기화 값 O

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

• 이벤트/인증값 생성기준 → 기촉값(고유값) + 카운트값 (비밀번호 생성 횟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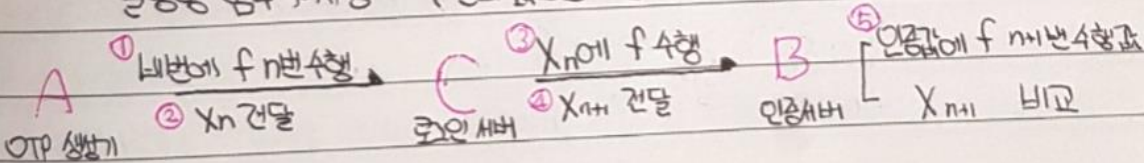


[그러나] 이벤트 동기화 인증 안하면 A/B의 카운트값 달라짐 [문제3]

Q4 ② 시간 동기화 방식 [해결3]

• 이벤트/인증값 생성기준 → (기촉값 + 생성 날짜/시간) → 일정시간마다.

일방향 함수 f 사용 (결과값으로 입력값 추론 X)



Q5 [그러나] 1. 인증서버-발생기 간 시간오차 → 인증 안됨 [문제4]
2. 입력 시간에 제한 있음

2003

< 조선 역법 >

Q1 동아시아 역법 = 중요 통계 행위 (하늘의 뜻 이해)

관상시 : 천자만 허락 → 고려는 중국 역법을 따름.

- 선명력 : 쉬움, 정확성 ↓, 교식 추보어 사용되었음.
- 수시력 : 어려움, 정확성 ↑

Q2 조선초 세종 → 수시력 실패, [근데 오차?] 문제1

[왜? 임성이 중국가진!] 원인1

[그래서? 중국 역법 (수시력) + 조선식 운용 (한양기준 임성)] → <철정산 내편> : 독자적 역법 (중국가진) 해설1

Q3 효용성 Test! = <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> - [오차 생겼음] 문제2

[그래서? <교식 추보법 가령>] 해설2

Q4 ○ 해

○ 달

동지	영. 차 ⊕ 궤. 차 ⊖	하지	궤. 차 ⊕ 지. 차 ⊖	윤지
= 근일점 가장빠름		= 가장 느림	= 가장빠름	= 가장 느림

* 속기 전보

(⊕ 차 = 실제 위치 - 평균 위치) ⊕ 지 → 평균 위치, 차 = 0

공식 = 선지!

Q5 삭 → 달이 태양가림 (태양-달-지구) 망 → 지구가 달가림 (태양-지구-달)

1, 2 공통점 → 경삭/망 = 경삭/망 (평균값) + [가공차] → 연삭차-지삭차 속도항

차이점 = 속도항이 무엇인지. 1 = 달의 속도 2 = 달의 속도 - 태양 속도.

Q6 박안기 → 일본에 역법 전파 - <정행력> (일본 독자 역법)

<주식회사>

2003

Q1 주식회사 → 자본조달력 ↑

왜? **본질적 요소** - **자본금**^①, **주식**^②, **유한책임**^③

Q2 **자본금**^① - 출자자가 **인수**한 발행 주식의 납입금의 전체.

○ **인수** = 출자자 + 출자 주식 수 확정

○ 발행은 일부 야 → 다 발행되면 전부인수.

- 최저한도 x → 정관 기재 x.

- 최대한도 0 → 수권주식총수 정관 기재.

- **회사**: 한도 내에서 주식 수가 발행 가능

자본
설명

Q3 **주식**^② - 자본금 구성 단위

- 1주 : 나뉘, 양도 x : 금액 균일 (100원 이상)

Q4 **유한책임**^③ - 주주가 가지는 권리.

1. 사들인 주식 한도 출자 의무

2. 주주 → 회사 채권자에 책임 x

3. 책임 가장 절대 x

Q5 그러나, **피해 가능성** 문제

- ① 자본금 >>> 실재산 → 신용도 파악 x
- ② 대주주의 사익추구 - 손해배상 x
- ③ 회사 위기 시 이해관계자 피해

문인

Q6 ① **자본유지의 원칙** = 자본금 실제로 출자 + 유지한다 됨.

ex) 여러 회사 들림 출자 x

② **자본분배의 원칙** = 자본금 변경 시 법적 절차 강제

특정, 자본금 감소 시 엄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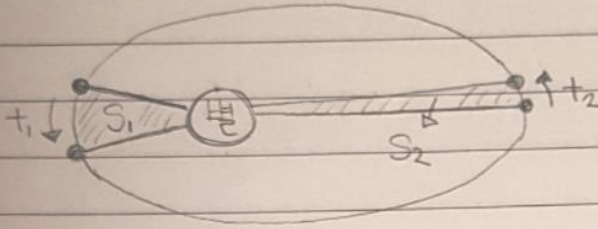
③ 중요사항 + 정관 변동사항 공고

하결

계절별 제3 법칙

단적 속도 일정한 법칙

→ 타원 궤도의 형상은,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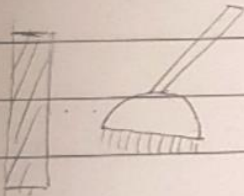
즉, 위 그림에서 동일한 시간 $t_1 = t_2$ 라면,
면적 $S_1 = S_2$ 입니다.

여기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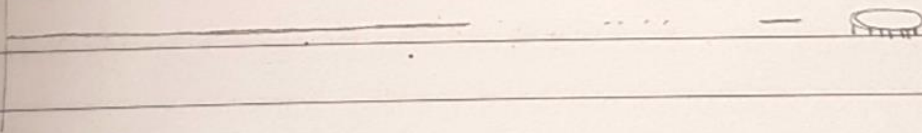
큰 빗자루 (ex) 파초) vs 작은 빗자루 (ex) 구드솔)

이 있다고 합시다.

큰 빗자루



작은 빗자루



같은 양의 먼지를 쓸 때, 큰 빗자루는 조금만 가도 금방 쓸지만,
작은 빗자루는 한참 가야겠죠?

위 그림에서, 빗자루의 머리가 짧은 S_1 쪽이 작은 빗자루,
 S_2 가 큰 빗자루입니다.

☆ 대신,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작은 빗자루가 더 크죠?

→ 그래서, 거리가 가장 짧은 '근지점'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.

12. <ㅎ중성 체언>

[보기 분석]

- ㉠ 하늘 + 이 → 하늘이 : ㅎ 연음, 음운변동없음
- ㉡ 하늘 + 스 → 하늘스 : ㅎ탈락
- ㉢ 하늘 → 하늘 : ㅎ탈락 (체언단독)
- ㉣ 하늘 + 도 → 하늘도 : 축약
- ㉤ 하늘 + 과 → 하늘과 : 축약

[해설]

- ① ㉠ 연음, 음운개수 변동 x
- ㉡ 음운변동 (축약) → 음운 개수 줄었다.
- ② → 매력오답 1.
 - ㉢ ㅎ → 교체 양어항 탈락 → ㅎ이 교체되었으면 사자 음운이 있어야 함.
 - ㉣ ㅎ 실현 x 아. 음운개수 줄었으므로 교체 x!
- ③ ㉢ → ~~말음 ㅎ~~ 종결음 → 받음에 관형격조사 → ㅎ 존재 x
- ㉣ → ~~말음 ㅎ~~ 종결음 ㅏ → ㅎ 축약
- ④ ㉢, ㉣ → 동일한 체언 단독인 식일 때... → ㉣은 단독이 아님!
- ⑤ → 매력오답 2
- ㉢, ㉣에서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~~개~~ '도', '과'가 결합됨을 나타낸 것이므로 '도', '과'가 ㅎ 축약 양어항.

19. <역번>

[보개 분석]

◦ 해 - 하지 → 동지 그러므로, 축차 적용.

축차는 ⊖ ∴ 영축차 값은 -2.39

◦ 달 - 윤기 → 근지 그러므로, 지차 적용

지차는 ⊖ ∴ 기질차 값은 -4.99

<청광산 내편 ... > , <교식 천보법 가령 > → 기감차 = $\frac{2.60}{\text{속도항}}$

[해설]

① 이날, 달은 실제 위치가 평균보다 두꺼졌습니다. (윤기 → 근지)

② → **미력 오답 1**

속도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

①의 속도항 = (달의 이동 속도)

②의 속도항 = (달의 이동 속도) - (태양의 이동 속도)

→ 본문에서, 해가 달보다 느리므로, ②의 속도항은 양수이므로

①의 속도항보다 작습니다.

북지는 서로 같은데, ②의 북모가 더 작으므로, 기감차는 ① < ② 입니다.

북수 안되는 경우 없게?

③ ①, ②의 기감차는 둘 다 양수입니다.

* <보개>를 권어권대로 먼저 다루, 지문에 맞게 가공하십시오.

④ → **미력 오답 2**

해가 하지 → 동지로 가죠? 그러므로 **축차**를 적용해야 합니다.

*아마, 양수라서 영차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듯 한데.

속도의 차는 「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값」 이라 항상 양수입니다.

⑤ 정삭 때는, 태양 - 달 - 지구 순으로 배열되어,

달이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.

23. <주식회사>

[보기 분석]

제5조 - 수권주식총수가 1만주네요.

제6조 - 1주당 5천원씩이네요.

제7조 - 1만주 중에 5천주만 발행하겠다고네요.

→ 모두 문제 없습니다. 선지랑 잘 조합해 보세요!

[해설]

① 수권주식총수 = 1만주 ○

수권재발급 = 개별금의 최대 한도 = 1만주 × 5천원 - 5천만원 ○

② → 매력 오답 1

제2를 봅시다. '현행 상법에서는 ... 최저 개별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...'

발행주식이 모두 인수가 된다면, 1주든 5주든 1만주든 문제 없습니다.

★ '이상한 선지', '보기 불편한 선지'를 고르면,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.

'에이, 누가 5천원 갖겠다고 주식을 상장하.' → 인답입니다.

무조건 지문 내용. 지문내용: 아니. 선지는, 감성용이 아닙니다 ㅎㅎ...

③ 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, 발행하기로 한 5천주가 인수되면, 문제 없습니다.

나머지 5천주의 분량은, 미래 이사회에서 결정 가능! (제2)

④ → 매력 오답 2

[주주(출자)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] → 개별금 (제2 이죠?)

5천주의 주식을 발행 → 5천원씩이므로 2천5백만원 맞습니다.

금심 안되는 후유 없게?

★ 적절한거 고르기엔지, 적절한거 안은 건지, 꼭 체크하세요.

특히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분명 헛갈립니다.

참이면 ○ 거짓이면 ×. 일관된 기준으로 체크하십시오.

⑤ 미발행 주식의 발행 → 이사회 결의 (단, 한도 내에서) (제2)

맞습니다.

32.

① 비밀번호 OTP 발생기에서 만드는 것인데,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고려해 만들어집니다.
기숫값은 변하지 않는 고유값이므로, 카운트값을 바꾸면 비밀번호 새롭게 생성되겠죠?

② → 매력 응답

영리한 주제 외곡입니다.

잘 보세요. 응답값을 생성하는 건, 인증 서버가 아닌 OTP 발생기입니다.

헛갈릴까봐, "응답값은 질의값과 다르다"고 못까지 북아 났군요. 치밀합니다. (92)

③ 기숫값은 변하지 않아요.

+ '비동기화' 방식인데 동기화라니. 땀이야요!

④ 이전 비밀번호가 복원되면 OTP가 아니죠.

☆ OTP란 → One-Time Password 입니다.

아셨던 분들은 이 선지 더 빨리 읽었겠죠?

⑤ 다시, 주제 외곡 문제건.

질문값은 인증 서버에서 생성되는 값입니다.

34. <김진욱전>

① 김진욱은 비둘기를 타고, 부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을 해치고 부인을 구했습니다.

어찌 **장안의 지형적 특성**이란? 말 수 없습니다.

② 마지막 문단! "천재의 명령 없이 가진 처치함이 신재의 도리가 아니다."

허락이 없으면 → 응징을 못한다. 겁이요?

대우 양계 응징을 하려면 → 허락이 있다 또한 참입니다.

③ **가대역모단**.

시머 죄수생도 낚였다! 너무 매력적인 3번입니다.

선지 판단 근거는 **유왕의 말**인데요,

"어찌 천재게 **현신을 두신** 치야를 어비리요."

중요한 표현은 '현신'인데요.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알현한다는 뜻입니다.

글을 쓴 의도는 '글로써 넓겠다'는 거죠. '김진욱의 글을 글로써 알려 처치한다'는

말. 맞는 말입니다.

④ **난영의 말**중.

"이렇게 침묵히 원사할 줄 꿈에나 생각했으리요."

예. 죽는 거 알고 있었습다.

* **난영이** 이 지문에 몇번 나왔어요? 예. **한번**이요.

보통 고전소설 첫문제는 수번인물들 물어보니까, 인물 꼼꼼히 체크하세요.

⑤ 무사 올, "진실로 가련하다." **게임 끝**.